

홈 > 뉴스 > 사람과 일상 > 알림

장흥위씨 도문화, 전주대 발전기금 전달

[0호] 2012년 01월 16일 (월) 21:25:56

이종근 기자 jk7409@hanmail.net



장흥위씨 도문화(회장 위두환)가 16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본부 접견실에서 전주대(총장 고 건)에 '국학 고전 연구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2천만 원을 쾌척하고 기증식을 가졌다.

장흥위씨 종중은 최근 고전학 연구 기금을 조성, 대학에 기부기로 한 것은 조선후기 여암 신경준, 이재 황윤석과 함께 호남의 3대 학자로 일컬어지는 존재 위백규의 문집('존재집')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완역한 것에 대한 사의로 알려졌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 전라도 장흥 출신 학자인 존재 위백규의 문집 '존재집(存齋集)'을 완역했으며, 지난 해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2010년도 연차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번역평가를 받아 출판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아 올 하반기에 '존재집' 6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올 계획으로 조선시대 중요 변란과 역모사건의 심문 기록과 판결문을 총망라한 국역 '추안급국안' 100책을 출간한다. 이종근기자